

수원 전경숙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하이드 '98.1/2 권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9-48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 275-8505~6 FAX: 275-8513 KOTA (철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님, 부유하면 가난하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베풀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1/2

우리네 아이들

98.1/2월호

<통권 57호>

<표지사진>

희색 담벼락에 붙은
아이에게는 무엇이 보일까.
좀더 멀리 세상을 보고픈
아이의 눈에
꿈과 희망, 용기와 사랑을 담
아주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땀 흘리며 아
이들과 뛰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진제공 :
부산 아기자립터어린이집)

일하며 생각하며 / 4

우리의 삶의 기둥은 무엇일까?

임남희

새해맞이 특별기획 / 6

- '98년에는 보육교사들이 모이는 신명나는 보육교사회를
만들시다 남미영
- 연구, 실천하는 교사상을 정립하자 최순옥
- 새학기 어린이집 적용사례 김혜원, 김연숙

이달에 권하는 책 / 12

『한국의 토종 101가지』

이강선주

보육정책 / 13

'98년도 보육사업지침 요약

한국보육교사회

통합교육 / 20

성공적 통합에 필요한 요소들

윤선아

△모임 소개 / 25

“한나라 밭기”가 함께 해요

김경아

연장교육 / 26

게임! 게임! 게임!

김연숙

연장소식 / 29

악동들의 추억 만들기 여행

임미란

어린이건강 / 32

아이의 특정행동에 대한 대응과 지도, 훈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36 / 신입교사교육

우리도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이 됐다!

제1차 신입교사교육을 다녀와서...

나,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됐지...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자료를 읽고

42 / 좋은 그림책 소개

『시메몽을 찾아주세요』

44 / 보육정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46 / 세상읽기

호랑이의 숨결을 느끼며 맞이한 새해

48 / 공트

눈이 내리네...

50 / 탁아소별곡

송이랑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52 / 우리들의 목소리

문득 떠오른 7년 전의 아이들

범피의 소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4 / 퍼즐

55 / 보육계 풍향

57 / 소식과 소식

60 / 편집부에서

짜·임·새

1998년 1/2월호(통권 57호)/첫발행 1992년 5월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남미영/편집인 박정애, 이선주, 황미혜/펴낸날 1998년 2월3일

일하며 생각하며

.....

우리의 삶의 기둥은 무엇일까?

임남희 · 한국보육교사회 부회장

해가 바뀌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책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그 느낌이 뭐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때와 다른 것을 보면 조금씩 철이 드나 봅니다.

선생님들은 2월이면 보내는 일과 맞이하는 일로 정신없이 보내겠지요. 독일의 슈타이너학교는 8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사는 평생 3번 내지는 4번 정도 담임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슈타이너학교에서 '슈타이너 아줌마'로 불리면서 인정받는 한 선생님은 2번째 담임반을 졸업시키면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과 8년간이나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왔단 말인가?"의 반성과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힌다고 회고합니다.

이는 1년이건 8년이건 모든 교사들의 반성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나 이곳 보육교사회에서의 활동에서도 불현듯 느끼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슈타이너 아줌마는 다시 신입생 사진을 가슴에 품고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의 보육교사와 같이...

교사 국악교육의 대모이신 임수정선생님께서 주신 작은 책은, 삶의 정체성이라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 특히 저처럼 무대포로 삶을 보내는 사람에게 구명보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스켓 만한 크기에 "삶의 12가지 기둥"이란 제목으로, 지은이는 삶의 기둥 모음입니다.

일하며 생각하며

.....

『우리는 어느 것을 실행하고 있으며 어느 것이 가장 잘 안되고 있을까요? 저마다 삶의 기둥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일은 평생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12가지 기둥은 ◦미소하고 화내지 마라 ◦습기지도 뽀내지도 마라 ◦기쁜 마음으로 살고 증오하지 마라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하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개선하라 ◦나의 지식이 적다는 것을 알고 남에게서 배우라 ◦남의 조언을 구하되 결정은 자기 가치관에 의존하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친구처럼 똑같이 대하라 ◦옛것과 새것을 함께 소중히 하라 ◦아는 것을 실천하라 ◦모든 것을 사랑하라 ◦계속하라 의 12가지 기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실행하고 있으며 어느 것이 가장 잘 안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슴에 와 닿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이는 어쩌면 평생동안 숙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98년도 사업방향을 내세워있는 사업으로 보육교사회를 알리고 조직의 안정화와 확대를 정했습니다.

사업은 항상 진행하고 있고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겠지만 그 결과를 예견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일은 가장 기본입니다.

회원들간에 사업방향과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한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자는 합의일 것입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집행부는 늘 보육교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이 되고자 계속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노래가사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나의 삶은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한가 오늘밤 퇴근길 거리에서 되돌아본다...'

새해맞이 특별기획·신년 메시지

'98년에는 보육교사들이 모이는 신명나는 보육교사회를 만듭시다.

남미영 · 본회 회장

국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 모든 기정에 희망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10여년의 지략연 역사를 마무리하며 한국의 보육현실을 보다 구체적이
게 발전적으로 고민하고 극복해 보고자 한국보육교사회를 창립하였습니다.새로이 시작되는 우리의 조직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
는 3만여명의 보육교사들과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많은 과제는 한국보육교사
회 회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연대감을 확인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립하는 '9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우선 한국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회원들 각자의 시각을 조정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
력합시다.한국사회 속에서 보육교사들의 현재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락하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 아니라 보육교사로서의 장기적인 전망을 조명하
고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전망을 내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동안 회원으로서 각위의 보육교사들과 함께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1인 1교사
회원확대를 각자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나의 발전뿐 아니라 동료들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보육교사로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봅시다.

지난해 윤정영원생님과 함께 했던 현장 연구일기 작업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육현장에서의 실천활동이 조직을 통해 체계화되고 확산되어
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소모임을 통해 회원들
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느낄 수 있었고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바로 이러한 실천활동들이야말로 보육교사회의 보이지 않는 힘이고 조직력입니다. '98
년 한해는 아이들의 열악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
체적으로 찾고 실천하는 보육교사들이 됩시다.

또한 '98년은 보육교사회의 지부사업을 확고히 하는 해로 만들어 갑시다.

아직 우리의 전국 구보통 불 때 몇 개 안되는 지부활동이 있습니다. 지난해 짧은 기
간동안 지부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더욱 굳고히 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워 나가
며 명실공히 보육교사들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보육가 함께 해 나가는 지부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끈끈히 자리잡은 지부들이 모여서 한국보육교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98년에는 보육교사들이 모이는 신명나는 보육교사회를 만듭시다.

동지들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하며 나의 기쁨으로 받아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봅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의 애정을 느끼고 보이면 즐겁고 헤어지면 보고싶
은 동지들을 많이 만듭시다. 해서 나 자신이 신명나고 아이들이 신명나고 부모들이 신
명나는 '98년을 만들어 봅시다.

1998년 1월

보육 보육 건강하십시오

본회에 온 연마장 중에서...

남미영 회장님!

늦은 새벽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98년 새해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획과 생각하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보육교사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교어린이집 원장 이창미 드림.

한국보육교사회 그리고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모든 분들께...

올 한해도 너무나 열심히 동분서주 하셨죠? 그 보장이 새해에는 빛을 발하게 되도록, 더욱 미련 듯 생활
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고 언제나처럼 환한 웃음과 신념 넘쳐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두 모두 힘 내시다. 힘!

유정은(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새해맞이 특별기획-우리의 각오

연구, 실천하는 교사상을 정립하자

-나로부터,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동료 보육교사들과 함께-

최순옥 · 본회 교육부장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과제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엄청난 짐을 지었다. '보육의 질 향상은 보육교사의 자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를 제시하며, 누구보다도 보육의 현실을 잘 아는 교사의 역동적인 힘으로 현재의 보육현실을 뛰어넘자고 결의한지 2년여의 준비기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보육교사 조직을 이루어냈다.

한국보육교사회 출범을 대외적으로 알린지 이제 6개월이 지났다. 창립 이후 첫번째 맞이하는 총회를 앞두고 새삼 우리의 화두가 되었던 몇 개의 단어가 머리 속에 떠오른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전문인으로서의 보육교사', 참으로 오랜시간(?) 동안 교사조직의 건설을 준비하던 보육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이 화두를 놓고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였다. 지나치리만큼 오랫동안 고민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창립을 앞두고 실제적인 준비에 들어가자 우리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이견들이 있었다. 우리 단체의 목적이 담긴 정관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짓고 우리의 지향성을 뚜렷이 나타내줄 구호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합의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막바지에 이르러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한국보육교사회'로 정해지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름에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에, 보육운동의 궁극적 지향성과 이념을 담아내자, 바람직한 교육철학을 담아내자, 이 땅의 모든 어린이의 인권 실현에 초점을 맞추자 등등 보육교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참으로 거창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대다수 보육교사들의 참여와 보육교사의 자세를 담은 지금의 이름과 구호가 정해졌다.

구구하게 지난 과정을 쓴 까닭은 참으로 거창한 과제인 보육의 발전은 많은 교사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명제를 되새기자는 뜻이다. 올바른 교육철학,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바람직한 교사상, 좋은 어린이집의 상, 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립 이러한 주제들은 자칫 우리가 처해 있는 보육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 때 공허해지기 쉽다. '좋은, 올바른, 바람직한'이라는 수식어에 견주어 우리 철학의 부재를, 교사로서 나의 부족함을, 어린이집 현실 상황의 열악함을 개탄하지 말자. 교사들, 어린이집들,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첫부른 잣대로 재려 들지 말자. 이제 고민의 출발을 나로부터, 우리 현장에서 찾아내자. 동료교사들과 함께, 정말로 많은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일하고 있다.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지만,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교사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자.

이제 너무 큰 주제를 화두로 놓고 그만 고민하자고 말하고 싶다.

- 교사로서 자신의 직업활동의 질을 높여내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자.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를 통해 자신의 교육행위를 돌아보고 아이들과 부모와 동료교사들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자.

- 구체적인 주제를 두고,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서 이제는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문제와 주제를 꼬집어 내자. 보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야말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97년 한해동안 현장 연구소모임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초기적응(까꿍방 강산이는 왜 나에게만 매달리는 것인가?-강산이가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이집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소외되는 아이(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소외되는 용남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체벌, 식사지도, 재롱잔치, 부모 협력작업, 부모오리엔테이션, 낮잠,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교사의 스트레스, 성교육, 영아의 행동수정, 영아의 공격적인 행동, 영아의 식사지도, 우유병 떼기, 야외학습, 자유놀이, 교사의 직업관...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일과 속에서 제기된 이러한 주제를 모두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주제를 통해 우리는 교사들의 의식의 스펙트럼, 현장의 문제를 끌어낼 수 있다. 교사들이 한계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교사들은 어떠한 전문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지, 열악한 보육현실조건에서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파악해낼 수 있다.

- '98년에는 현장교사들의 공동연구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보자. 우리 보육의 대안적 모델은 우리가 밭 더디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내게서, 보육교사들의 공동작업 속에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98년 한 해를 맞이하자.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의 역동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제넘은 글을 마친다.

표지사진 공모

- 『우리네 아이들』에 예쁜 얼굴을 보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는 순간 가슴을 흔하게,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세요. 어린이집 일상활동에서 자주 접하지만 결코 흔치 않은 아이들의 맑은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을 보내주세요. 열악한 현실에서도 '글세어라 글순이'를 가슴으로 부르며 꿋꿋하게 생활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보내주세요.

그저 그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사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 어디로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요, 주소랑 전화번호는 『우리네 아이들』 앞표지에 나와있어요.

이들은 무척 재미있어 하고 나중에는 교사가 올라가 앉고 아이들이 모두 힘을 합쳐 끌어 줌으로써 자기들끼리의 집단 의식, 일체감을 맛보게 된다.

이 활동은 이빨을 이용하므로 낫잡을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진다.

[홀라후프 기차]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 홀라후프의 개수를 정해서 아이들을 모두 홀라후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교사를 운전수로 어린이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기차놀이를 한다. 한 홀라후프에 여러 명씩 매달고 교사와 힘겨루기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교사와 매우 친밀감을 느끼고 자기들끼리도 매우 재미있게 짝꿍거리다.

[뜨거운 포옹]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양 팔을 벌리고 달려와 힘차게 끌어 안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런 적극적인 표현 방법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교사는 반드시 따뜻한 인사말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

[종이 띠 잇기]

2센티 정도의 종이(폐지나 신문지)를 잘라주고 아이들이 각각 풀칠을 해서 한 줄로 길게 이어 나가는 활동이다. 단순한 활동이지만 아이들은 종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할 뿐더러 모든 아이들이 한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길게 이은 종이 띠를 양 끝에서 잡고 아이들이 종이띠를 넘어 다니게 한다.

이달에 권하는 책

『한국의 토종 101가지』

웅진출판(홍석화)

숨다리를 아십니까? 흔히 에델바이스로 알려져 이국의 어느 나라에서만 피는 줄 알고 있던 그 꽃의 우리식 이름이 숨다리랍니다.

‘환경교육’이란 화두를 안고 살았던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교육’하면 쓰레기 분리수거와 지렁이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 나의 무식함에 괴로워하던 참에 만난 책이 홍석화님이 쓰신 『한국의 토종 101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도 모르고 있는’ 우리 동·식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살피고 각자 가능한 대로 손쉬운 것부터 가꾸고 키워보자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산천을 여행하면서 만나게 된 작은 들꽃들부터 제주 조방말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의 유래와 쓰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천연색 사진을 덧붙여 볼 때 마다 “아하! 그 꽃의 이름이 그거였구나”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셔도 볼 수 있는 수많은 작은 것들... “선생님 이게 뭐예요?”하고 물으면 “으~음 풀이야!”하고 얼버무리버리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수 많은 풀들이 제 이름을 가질 때 아이에게 그것은 그저 풀이 아닌 ‘고잡재비꽃’으로 ‘쇠비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에 멋지게 설명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야말로 바로 훌륭한 환경교육의 실천자가 아닐까요?

이강선주(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보육정책

‘98년도 보육사업지침 요약

· 한국보육교사회 ·

1998년도 보육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정된 사항과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옮겼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은 중앙보육정보센터 kda-net의 보육지침 변경내용을 인용하였고 본회에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주요내용)

1.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훈련기간	교육기관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한시적 조건부 인가 시설장 중 교육 미이수자	400시간 이상	국립사회복지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 위탁기관
2급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	고졸 이상 학력자	1,000시간 이상	보육교사 교육원
보수교육과정	시설장, 보육교사	20~40시간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교사 1급 승급 보수교육과정	2급 보육교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20~40시간	보육교사 교육원
방과후 아동보육 보수교육 과정	○ '96.6월 이전에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2급 보육교사로서 방과후 아동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 1급 보육교사 - 단, 방과후 아동 보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40시간	보육교사 교육원

** 시설장 양성교육을 제외한 교육은 자체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97 대비 변경사항

- 전문대학 이상의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이 없는 시·도는 관내 교육기관 중 시·도지사가 선정한 우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승급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각 시·도지사가 선정하여 교육 위탁.

2. 보육교사 교육원 수강료 수납

□ 승인기준

구분	수강료 수납 한도액	수강료 내역
양성교육	880,000원	- 전형료, 원서대 별도 - 교재대 별도
보수교육	34,000원	- 교재대 포함

** 양성교육과정은 '97년도 수강료 수납한도액에서 교재대(보육교사 교육원 연합회 발간교재 93,000원)를 제외하고 추산한 금액임('97년 수준 동결 원칙).

□ 수강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규칙 변경시까지의 시·도지사가 승인.

- 양성교육과정의 전형료, 원서대는 시·도지사가 '97년 수준내에서 수강료와 구분하여 승인.

3. 수료 인정 기준

□ 이수하여야 할 과정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과목별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로 함.
- 종전 과목별 총 시간의 90%를 과정별로 변경

□ 교육훈련 성적이 60점 미만인 자는 재시험 및 과제물 제시 등으로 평가하여 수료할 수 있도록 함.

'97 및 '98 보육사업지침 대비표

* '98 보육사업 예산 '97 대비 18.1% 감소

- 인건비 지원 대상 종사자수 감소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기능보강비 축소

국고보조 수행지침 중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지침

구 분	'97	'98																
1. 목적	(생 략)	(좌 동)																
2. 방침	〈신 설〉 나.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지원 가능 (1) 〈신 설〉 (2) (생 략) (3) 〈신 설〉	나.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보육시설의 설치·보육아동수 및 지역간 균형배치되도록 하되, 농어촌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신규 확대 추진 가능 (1)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 24시간보육,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는 타보육시설 설치비에 비하여 우선지원 (2) (좌 동) (3)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육료,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운영비 등 지원																
비고	공공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 및 취약지역 우선설치 유도																	
3. 보육료	(4)-(6) (생 략)	(4)-(6) (좌 동)																
나. '98 보육료 '97 보육료 동결	(1) 표준보육단가(단위: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세미만</th><th>2세</th><th>3세이상</th></tr> </thead> <tbody> <tr> <td>국공립</td><td>213</td><td>176</td><td>109</td></tr> <tr> <td>민간</td><td>304</td><td>247</td><td>148</td></tr> <tr> <td>가정</td><td>325</td><td>325</td><td>179</td></tr> </tbody> </table> (2)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3세 이상 유아보육 단가의 50% 적용 (3)-(6) (생 략)	구분	2세미만	2세	3세이상	국공립	213	176	109	민간	304	247	148	가정	325	325	179	(1) 표준보육단가 (좌 동) (2) (좌 동) (3)-(6) (좌 동)
구분	2세미만	2세	3세이상															
국공립	213	176	109															
민간	304	247	148															
가정	325	325	179															

4. 보육시설 운영		'97 인건비 동결
국고보조금 지원	(가) 종사자 인건비	(가) 종사자 인건비
(1) 시설 운영비	1) 대상 가)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2호에 의 한 보육시설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시설 ①-⑤ (생략)	1) 대상 가)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2호에 의한 보육시설로서 다음중 1 에 해당하는 시설 ①-⑤ (생략)
	나) 다 (생략)	나) 다 (생략)
	(나) 지원기준 가) ① (생략) (신 설)	(나) 지원기준 가) ① (좌 동) ② 지원교사수 산정 사사오입 적용 ③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불가 (보육료 충당)
	나) 라 (생략)	나) 라 (좌 동)
	마)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①-② (신 설)	마)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①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중 사회복지관 과 기구·조직을 분리하고 예산편성, 집행 등 재무회계가 독립채산방식에 의거 운영하였을 경우 정부지원시설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 ② 사회복지관 직원(과장 등)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원장 인건비 지 원 불가
	2) 장애아·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2) 장애아·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운영하 는 민간보육시설 가)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에 준하여 지 원하되 최대 보육교사 3명 인건비 지원 가능
	3) -4) (생략)	3) -4) (생략)
	(다) 시설별 지원 기본유형 및 지 원기준	(다) 시설별 지원 기본유형 및 지원기준

	(라) 지원내용 1)-2) (생략)	(라) 지원내용 1)-2) (생략)
	(신 설)	(공통사항) * 사회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 등)의 납입금액은 각 개별법에서 정 한 요율에 따라 납입(정부지원 금액과의 차액 은 운영주체 및 자치단체에서 충당)
	(2)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나) 지원규모: 개소당 연 300천원	(2)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나) 지원규모: 개소당 연 600천원
	(3)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생략)	(3)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좌 동)
	(4)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생략)	(4) 보육정보센터운영비(좌 동)
나. 저소득층 보육료	(1) 대상시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 시설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 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 및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 득계층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	(1) 대상시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로서 생활 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계층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
	(2) 지원기준 (가) 법정저소득층 아동 (생략)	(2) 지원기준 (가) 법정저소득층 아동(좌 동)
	(나) 기타 저소득층 아동 1)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수준 이하 가정 2) 재산 (신 설)	(나) 기타 저소득층 아동 1)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수준 이하 가정 2) 재산: 가구당 3,200만원 이내(4,800만원 이내) * 재산가액이 주택(전세 포함)이거나 정기적 인 소득(임대료, 정기적인 이자수입 등)이 없 는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 청장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이내까지 책 정 가능

	(3)기타저소득층 지원기준 (가)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인 이하:90만원까지 -3인 이하: 100만원까지 -4인 이하:110만원까지 -5인 이하:120만원까지	(4)기타저소득층 지원기준 (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인 이하:100만원까지 -3인 이하:110만원까지 -4인 이하:120만원까지 -5인 이하:130만원까지
비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369천원	
	(나) 소득조사방법 1) (생 략) (신 설) (4)정부지원단가 (가)법정저소득층 -2세 미만:213천원 -2세:176천원 -3세 이상:109천원 (나)기타 저소득층 -2세 미만:85천원 -2세:70천원 -3세 이상:44천원	(나) 소득·재산조사방법 1) 소득·재산조사시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생보65130-451호. / 97.7.26)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2) 유형별 소득·재산의 구체적이나 파악방법은 1)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파악이 우선함 (4) 정부지원단가 (가)법정 저소득층 -2세 미만:213천원 -2세:176천원 -3세 이상:109천원 (나)기타 저소득층 -2세 미만:85천원 -2세:70천원 -3세 이상:44천원
다. 시설기능보 강비	(1)시설증개축 (다) 지원단가:704,000원/㎡ (국비, 지방비 포함)	(1)시설증개축 (다) 지원단가:704,000원/㎡ (국비, 지방비 포함)
5. 국고보조비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생 략)	(좌 동)
6. 국고보조금 교 부신청	(생 략)	(좌 동)
7. 보조사업의 실 적보고	(생 략)	(좌 동)

8. 보조사업의 정 산보고	(신 설)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실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실시시기: 2/4분기 예산교부 결정후 (98.6월말 기준) - 대상사업: 자치단체 보조 - 보고기한: '98.7.30까지
9. 국고보조사업 의 내용변경	(신 설)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사업장, 사업자, 목적의 사용 등)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0. 기타사항	(생 략)	- 신청서 구비서류 ○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 시, 도지사의 사업변경에 대한 의견서 ○ 관계공무원의 검토의견서

<제5회 퍼즐 퍼즐> 정답

국	채	보	상	운	동	회	생	물
재	평			지	나	가		
통	주	지	송	정	리	해	고	
화	의		무	인	년	열		
기		소	동		재	동		
금	오	신	화	초	상	권	병	
	두	기	자		모	파	상	
영	막	탄	격		마	술	련	
구	전		중	권	수	달		
		트	림	총	회	역		

통합교육

성공적 통합에 필요한 요소들

윤선아 ·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특수교육 책임교사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실천대안을 보다 깊게 해주는 『통합교육』 연재물이 지난 1997년 11월호에 이어 재게되었습니다. 그간 본지를 통해 두차례 기고된 주제는 「통합교육의 필요성(1997. 10월호)」과 「통합교육의 효과(1997. 11월호)」입니다.

이번호 일정중에도 『우리네 아이들』 석구들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신 윤선아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몇가지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는 통합보육/교육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가 유아기라고 입증하고 있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는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이 또래와 단체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술, 질서의식, 자립심,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적응기술들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통합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먼저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육보다 발달적으로 좀 더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즉 유아반이나 유치반 아동들의 자유놀이나 교육프로그램내에서 아동들이 보여주는 흥미나 능력은 좀 더 구조적이고 획일적인 초등학교 프로그램내에서 보다는 다양하며, 능력의 차이에 있어서도 보다 수용적이라 할 수 있다. 능력의 차이에 있어서 수용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능력별 평가보다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과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 이렇게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수용적일 수 있는 데에는 아동이 어린 시기에는 타인에 대한 편견이 적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 데에 성인(부모나 교사)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통합교육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는 장애아동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특수아동)은 무조건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통합을 위한 준비를 갖춰서 일반교육기관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모든 장애아동이 통합을 했을 때 똑같은 정도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듯이 (통합의 준비 정도)에 따라 통합환경은 특수교육과 함께 제공될 수도, 특수교육을 통한 준비학습 후에 제공되어질 수도 있다. 통합의 준비정도가 바로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통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논의될 선결과제들은 통합이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에게 효과적인가를 가능케할 수 있는 "성공적 통합의 요소"가 될 것이다.

Salend(1984)는 통합을 위한 요인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수준 평가 및 교사 연수 등을 들고 있으며, 정영경(1990)은 장애아 통합교육의 요건으로 적절한 학급 인원, 충분한 교수자료, 전문교육을 받은 담임교사를 말하고 있다. 김광웅(1990)은 장애의 정도, 통합의 수준, 장애아의 비율, 정상아의 태도 및 교사의 자질을 통합교육의 요건으로 들고 있으며, 총신대 부속 유치원의 통합교육 사례에 관한 연구 보고에서도 장애아의 조건, 정상아의 태도, 교사의 자질, 교실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의 기본조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먼저, 장애아동이 통합의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Cole과 Chan(1990)은 이를 아동 요인으로서 이렇게 설명한다.

- 장애아동의 적응행동과 사회성 발달수준
- 일반적인 인지능력 수준
- 학습준비도 및 교과 학습 기술
- 통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발성

통합이 장애아동의 교육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있는 이유는 모든 장애아동을 일반아동과 통합시킨다고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장애아동이 의자에 착석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인 신변 처리/자조기술이 전혀 안되어 있는 심한 장애아동이라면 일반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그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이 장애아동은 통합이 되어도 공간만 일반아동과 공유할 뿐 사실상 교사나 일반아동에게 방치되기가 쉬우며, 그렇다면 이 장애아동에게는 오히려 통합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절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통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각각 나름대로 장애아동의 조건과 배치문제를 통합 전에 검토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배치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장애아동이라고 의심이 되는 아동을(특수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교사나 부모의 관찰에 의해 선별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진단을 위해 진단기관(병원이나 복지관)에 의뢰한다. 진단은 의사, 심리 검사자, 사회사업가, 언어 치료사, 특수교사로 구성된 팀이 검사/상담/관찰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 후에 내리게 된다. 이때 진단과 평가의 결과는 담당교사가 각 아동의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참고자료가 된다. 진단결과를 참고한 후에, 국공어린이집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인지, 장애아동이 배치될 교실의 적합성(생활 연령과 정신 연령, 행동 특성 등) 여부에 따라 배치를(완전통합이나 부분적 통합이나) 결정하며, 총신유치원의 경우는 학급인원의 10%내에서 장애아의 장애정도(지능, 사회성 기술)에 따라 입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배치나 입급 여부의 결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나 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전

문 치료/교육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성공적 통합을 위한 요인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요인에 이어 둘째로는 **성인(교사나 부모)이 통합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일반아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성인으로서 통합프로그램과 효과에 대한 확신과 일관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통합교육의 일반교사는 장애아동의 발달과 행동 특성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참여시키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수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교수기술에는 교육자료 활용 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사 자신의 올바른 태도와 프로그램으로의 적응도 포함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함께 배워요, 1997).

‘선주야 만지지 마’, ‘선주야, 내가 해줄게’, ‘선주야 여기 앉아’. 다운증후군을 가진 선주는 유치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지만 또래 일반아동들은 선주를 마치 아기처럼 대한다.

산만스럽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기성이를 위해 교사는 기성이 의자를 하나 정해 주고 다른 아동에게서 조금 떨어진 교사 옆에 의자를 놓고 앉게 하였다. 기성이가 간식 시간에 기성이 의자가 아닌 의자에 앉아 민기와 정규가 기성에게 와서 ‘여기 앉지 마! 너는 파란 의자에 앉아야 해’라고 하면서 기성이가 앉은 의자를 당겼다. 만들기 시간에 기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있는 탁자에 가서 앉으려 하자, 정규가 ‘여기는 네 의자가 없어. 저기 가서 앉아’하고 기성이를 잡아당겨 다른 탁자에 있는 기성이 의자에 앉힌다.

위의 예에서 선주와 기성에게 도움을 주려고 의도한 교사의 의도는 오히려 일반아동들에게 장애아동을 또래로 생각하기보다는 아거나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여기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다.

현철이가 말을 못하는 것이 궁금하여 미현이는 현철에게 “현철아, 너 병어리니?”하고 물었다. 교사는 병어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말 못한다고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고 하였다. 미현이가 현철이를 놀리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교사의 해석에 의해 현철이를 놀리는 것이 되었다.

“주혜야, 나 한번 해봐도 되니?” 국현이는 주혜가 끼고 있는 보청기가 궁금하여 빼서 만지려고 하였다. 교사는 국현이가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주혜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예는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 기회를 교사가 과민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방해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이고 있다. 교사는 일반아동들의 의도와 행동을 잘 관찰하여 정말 놀리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궁금함 때문인지를 파악하여, 바른 태도를 길러주거나 적절한 설명을 해주고, 친구로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은지를 지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처럼 유아교육기관의 통합교사는 성공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성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통합교사의 지식, 태도, 기술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세미나, 사례 발표, 회의,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방문, 연수 등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동이 현재 받고 있는 통합교육 외의 서비스가 있다면 그 담당자(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와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일반 유아교사의 특수 프로그램 담당자는 함께 아동의 현재의 문제점과 아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 방향 및 교수 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 한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치료/교육자/부모가 아동의 진전과 현재 상태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 팀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연대감은 성공적 통합프로그램의 요인이 된다.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사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강위영, 윤점동, 1987).

- 따뜻한 수용적 분위기가 확립되었는가
-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들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장애아동의 어떤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가
- 특정 장애조건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한 특수한 질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접촉해야 할 사람을 알고 있는가
- 어떤 교수영역에서 시판자료(교재, 워크북, 교사지침서 등)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아에게 적절한 교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어떤 교수영역에서 장애아의 진보에 관해 개별적으로 기록하는가
-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아들의 부모들과 대화를 자주 갖는가
- 통합교육이 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는가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으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를 빼놓을 수 없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육과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아기 교육부터 지나치게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 지향적일 뿐 아니라 극단적인 가족이기주의가 만연해있는 풍토에서는 프로그램 참여교사들의 확신과 일관된 태도를 바탕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일반아동 부모가 가진 장애아동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은 일반아동의 “친구를 보는 시각과 친구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직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일반아동 부모중 장애아동의 장애가 전염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장애아동을 가까이 하면 나쁜 행동만 배운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통합 유아교육시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잘 계획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장애유아가 안정적이고 유익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

경구성을 위한 자료/시설/설비의 개선과 구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아동에게는 불편하지 않아도 특정 장애아동(신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에게는 불편하고 부적절한 시설과 자료들이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환경과 보조도구 자원에 대해 이해를 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조용태교수는 생활의 장으로서의 공간(보육실, 화장실, 세면장 등)에서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위한 환경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실환경 내의 놀이감 구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다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모래놀이, 물놀이, 소꿉놀이 환경을 만들어준다던가, 협동적 놀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래, 점토, 세발 자전거, 블록 등의 놀이감을 배치해주는 것도 통합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교실의 환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Karens과 Lee(1979)는 통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요인으로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장애아의 장애정도와 발달적 필요에 적합한가
- 장애아와 일반아에게 미치는 이로운 점이 고려되었는가
- 장애아와 일반아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가
- 장애아 및 일반아 부모의 태도가 평가되었는가
- 통합프로그램의 참여 후 일반아와 장애아의 적응상태가 검토되었는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아동의 일률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활동에서는 장애아동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제한될 수 있고 장애아동을 소외시킬 수 있다. 통합의 목표에 적절한 교육과정은 각 아동의 흥미를 포함하여야 한다(함께 배워요 재인용, Salisbury, 1990). 소집단 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도 있으며, 자유놀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상호작용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교사가 잘 계획된 환경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통합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 내에 장애아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애아동의 발달적 능력을 교사가 파악하여 활동의 한 부분이라도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한 내용은 통합교육 프로그램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성공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지면을 통해서도 장애아동의 진단에 관련된 장애별 특성을 살펴보겠다.

소모임 소개

"한나라 밭기"가 함께 해요

김경아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교사

"한나라 밭기"

한 땅, 넓은 땅, 우리나라 국토의 곳곳에서 우리 조상들의 숨소리와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다니는 통일 기행 소모임입니다.

1995년 여름, 광주탁아소연합회에서 교사들이 스스로의 각성에 의해 만든 이 모임이 벌써 3살이 되어갑니다.

처음 "만들어 보자"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모임의 내용이나 형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교사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한달에 한번의 독서토론과 두달에 한번 있는 기행들의 모임내용을 갖춰가면서, 서로간의 알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고, 전남북 지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쌓은 육체적인 부대끼는 각각의 회원들에게 많은 정과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어갔습니다.

또한 1997년 한해는 회원 중에 몇 명이 결혼과 함께 직장도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회원 축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한번의 열린 기행과 "어린이집에서의 나들이 장소, 이런 곳 어때요"라는 제목으로 소모임을 알리는 사업 등 열린 사업을 시도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1998년은 보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기행 기획의 폭을 넓혀 볼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 토론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시켜 주기 위한 교육내용의 점검·보완 작업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2년이 보람찬 해였듯이 올해도 광주보육교사회 창립과 더불어 "한나라 밭기"도 많은 성과를 거두는 힘찬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모임 대표는 도담도담어린이집 김경아교사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

연락처 : 062-228-6786(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 계룡산 열린 기행에서 기념촬영한 한나라 밭기 회원들.

▼▼▼▼
현장교육

게임! 게임! 게임!

김연숙 · 서울 관악구 싹싹이어린이집 교사

게임은 아이들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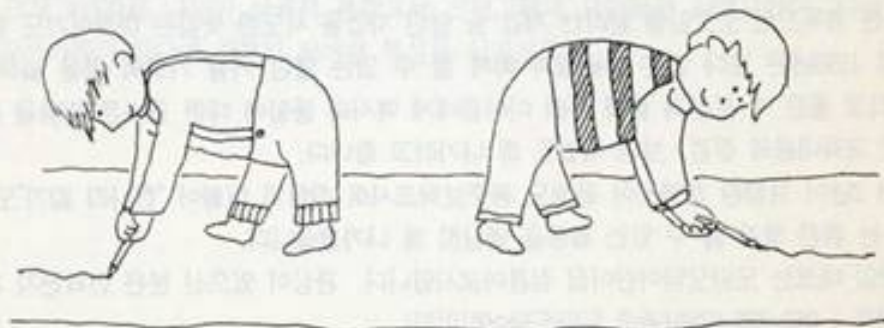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개인적이고 경쟁심이나 승부욕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여럿이 함께 해야 재미있고 모두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게임놀이를 소개한다. 어느 시설에서나 복잡한 준비 없이 즐길 수 있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 뒷걸음질로 줄 긋기

[재료] 전지 여러장, 색연필 2가지 색

[활동방법]

- 전지를 길게 이어 바닥에 붙여 놓는다.
- 두 팀으로 나누어 전지의 양 쪽 끝에 선다.
- 뒤로 돌아 허리를 굽혀 서서 양쪽 다리 사이로 색연필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줄을 그으며 뒷걸음질 쳐서 나아간다.
- 가다 보면 중간쯤에서 상대방 엉덩이와 부딪치게 된다.
-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자리를 비켜 죽 줄을 그으면 줄이 똑바로 그어진다.
- 서로 엉덩이로 밀치게 되면 줄이 꺾여 꼬불꼬불 그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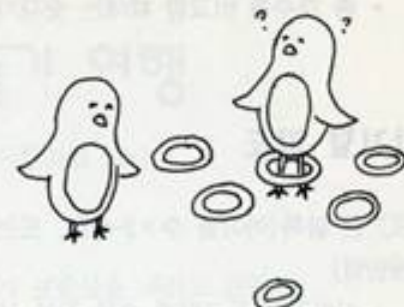


◎ 맹권 걸음

[재료] 고리 던지기

[활동방법]

- 각색의 고리를 바닥에 흩어 놓는다.
(각 색깔 당 아이들의 수 만큼)
- 교사가 지시하는 색을 찾아 고리 속으로 발을 넣는다.
- 고리를 발목에 건 채로 다음 지시하는 고리로 이동해 또 발목에 건다. (반드시 두 발로 종종 걸음 걷기)
- 정해진 개수를 다 걸고 나면 두 발 동시에 톱톱 뛰기를 해서 반환점을 돌아온다.
- 게임에 참가한 아이들이 모두, 하나의 지시를 통과 한 후에 다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좋다.



◎ 짝꿍 손수건 놀이

[재료] 아이들 수만큼의 손수건

[활동방법]

- 3-4세 연령에 적당하다.
- 손수건으로 여러 가지 접기 놀이를 한다(네모접기, 세모접기 등등).
- 마지막으로 길게 여러번 접기를 한 다음 둘씩 짝을 이루어 수건을 교차해서 건다(둘 다 수건의 양 끝을 꼭 붙잡는다).
- 한 사람은 엎드리고 한 사람은 잡고 끌어준다.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다.



◎ 빨대 뿜기기

[재료] 한번 사용한 빨대, 가위, 검정 천

[활동방법]

- 바닥에 검정 천을 깔고 약 30-50센티 떨어진 곳에 경계선을 표시한다.
- 가위로 빨대를 잘게 잘라 검정 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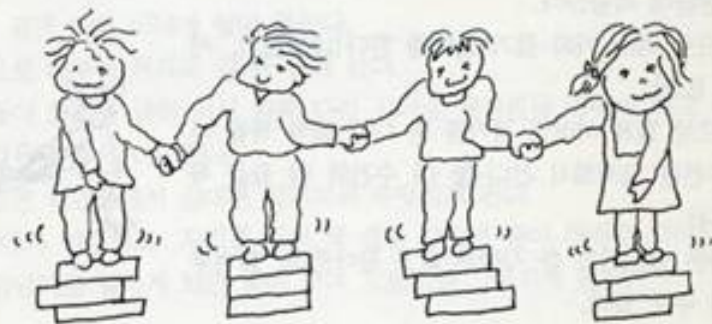
- ▶ 빨대가 이러저리 뚫기므로 여럿이 하게 되면 식별이 어려우니 2-3개 조가 하는 것이 적당하다.
- ▶ 각 조 원은 자기 조원의 빨대가 들어 갔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
- ▶ 천 안으로 들어간 개수를 표시해 주면 수 놀이까지 결합할 수 있다.
- ▶ 총 개수를 비교할 때에는 숫자가 크니, 세는 것보다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이 좋다.

◎ 간지럼 파도

[재료] 큰 블록(아이들 수×3-4개), 또는 종이벽돌

[활동방법]

- ▶ 아이들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서 있다.
- ▶ 손은 절대로 놓으면 안되고, 교사가 간지럼을 태운다.
- ▶ 그 다음에는 블록을 하나씩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손을 잡는다.
- ▶ 마찬가지로 간지럼을 태우고 블록 위에서 내려오지 않기로 약속한다.
- ▶ 블록의 개수가 증가 할 수록 아이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다가 한 아이가 떨어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모두 떨어지게 된다.
- ▶ 블록을 높이 쌓으면 떨어질 때 다칠 위험이 있으니 적당한 개수를 정해야 한다.
- ▶ 블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종이 벽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현장소식

악동들의 추억 만들기 여행

임미란 · 경기도 부천 동그라미어린이집 교사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불행하게도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며칠 전 엄마들과 앉아 하던 말들이 떠오른다.

"우리 아이들이 기저귀 차고 동그라미에 왔다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유치원엔 가게 되고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앞으로 동그라미 동문회를 조직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연의 끈들을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간의 끈끈한 점을 더 다지고 자연과의 일체감을 통해 스스로 우뚝 선 아이들이 되었으면 해서 1박2일의 강화도행 추억만들기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급게 단장을 한 9명의 사나이들이 모두 모였고 우리 출발하기 전에 일정 설명을 한 후에 기도(?)를 했다.

"하늘님, 하늘님!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는 건 좋지만 우리가 노는 데 조금 어려우니 오늘과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님 부탁드립니다!!"

9시30분 동그라미 봉고차는 흥분 속에 출발하고 아이들은 노랗 부른다. "나는 나는 산으로 갔었지, 산에서 무얼 보았니..."

지지배배 왁자지껄, 과자봉지가 날리고

그런데 와

가랑비는 어데로 가고 햇님이 당당히 출현. 그것 참, 기도 위력 한번 기가 막히네.

11시30분 우리는 마니산의 반대편인 합허동천에 도착했다. 합허동천은 마니산의 반대편인데 청소년 야영장을 갖춰 놓고 텐트를 빌려주고 식수시설 등도 갖추어져 있으며 계곡도 넓게 흐르고 있어서 캠프장으로 좋은 곳이었다.

우리는 한 30분쯤에 의기양양 오르다가 잔디 좋은 곳에서 김밥을 먹는데 다 먹은 아이들은 막대 하나씩을 주워 박힌 돌 뽑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밑으로 구르기 놀이를 하는 등 유노동 무임금에 열중하고 다시 출발한 길은 산길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충분히 떨어진 낙엽들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하고 옆으로 이어지는 긴 기암괴석에 살짝 얼굴이 얼고 그 밑으로 청아한 맑은 물소리가 미끄럼을 타듯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산을 중간쯤 올랐을까. 넓적한 바위에 넓적한 얼굴을 한 아저씨가 찬 밥에 김치를 올려 먹으며 "올라가기 힘들 것인데"하면서 걱정을 하고 역시 넓적 아저씨의 충고대로 한쪽은 남떠러지요 또 한 바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앞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엉덩이를 밀며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올라들을 간다. 어, 저기 하늘이 보이는데, 정상인가 보다.



← 앞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며 드디어 올라온 마니산 정상. 이 위대한 순간을 어찌 놓칠 수 있을까! 대견한 우리 아이들.

으쌔, 으쌔!

으와 그곳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안개 낀 산등성이들과 웅기종기 모여앉은 시골 동네들. 그 앞에 펼쳐진 강화도의 바닷가.

난 아이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정상이 아니었다. 다시 영차하며 힘을 내서 악동들은 산을 오르는데 바위가 험했다. 웅달의 얼굴이 녹아서 땅은 질퍽거리고 한 아이가 드디어 울기 시작했다

“애야, 힘내. 조금만 더 가면 산꼭대기야.”

위로 하고 협박하면서 얼마를 더 갔을까. 드디어 정상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해낸 것이다.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소리 우렁차고 기분 최고였다. 이 위대한 순간에 저쪽 하늘 끝에서 올라온 청년에게 부탁해 빠짐없이 필름에 몸을 담고 다시 산을 내려가는데,

한데 이것 보세요.

우리 새끼들이 기뻐차게 잘 내려가네.

그것도 “야 정말 이상하다. 올라갈 땐 힘들더니 내려갈 땐 하나도 힘이 안드네”하면서 말예요.

위대할 사 우리는 1시간만에 산 정상에서 날고 굴러서 내려올 수가 있었다. 내려가서 민박집이 있는 ‘내리’라는 동네까지는 계속 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동악해수욕장쯤에서 일몰을 볼 수가 있었다.

긴 바닷가 수평선으로 붉은 태양이 긴 꼬리를 파도에 찰랑대며 가라앉고 있는 모습에 신비로와 하면서도 새로운 놀이를 찾아 찬 바닷물에 손을 담그는 아이들을 달래서 데리고 민박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은 성공회교회에서 민가 하나를 얻어 빌려주는 곳인데 모든 게 다 갖춰진 4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그 맛 아세요? 삼겹살이 꿀맛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저녁을 마치고 문명세계로 나가서 집집마다 아이들은 전화를 해서 건재함을 알리며 엄마 아빠 사랑해요를 하고, 돌아와 우린 모닥불을 피웠다. 춤도 추고 재미난 얘기도 하고 소원을 모아

하늘님께 기도도 했다. 어떤 기도를 했냐는 질문에 한이 “동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놀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린 미친 듯한(?) 불꽃놀이를 끝내고 들어와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이들은 선생님의 동화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꿈나라로 또 다른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여 우리도 발길질하는 아이들 틈에 끼여 잠이들 수 있었다.

아침 7시나 됐다. 악동들은 벌써 일어나 설치고 “애들아 일어나 산책하자.”

추위에 어슬렁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시골의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음에 이른 아침부터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아침 메뉴는 카레라이스. 처음 하는 칼질에 아이들은 재미있어하고 씻었다고 높은 그릇들을 다시 선생님들이 씻으며 아침을 든든히 챙겨먹고 오늘 목적지인 석모도라는 섬을 향해 출발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가니 선착장이 나오고 배삿 왕복 300원에 여객선을 타고 울랄라 신난다. 배의 무게를 못 이기듯 바다는 흰거품을 내며 갈라지고 배에서 내려 섬의 갯길을 따라 계속 가니 보문사라는 큰 절이 산 중턱에 있었다.

이절은 신라시대에 만든 절인데 어느 어부가 바닷일을 하다 그물에 올라온 부처상을 이 석굴 밑에 오셨더니 큰 부자가 됐다는 일화가 있는 재미있는 절이었는데 큰절엔 몇 백년이나 굳게 그 자리를 지켜온 늙은 나무도 있고 그 옛날 대중공양에 썼음직한 큰 절구통과 뱃돌도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수난을 받았다.

한 아이는 물기를 “그런데 왜 부처님은 저기 저렇게 앉아 있어요?” “응, 그런 부처님처럼 좋은 일을 한 분을 항상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잊어먹지 말라고 항상 그렇게 앉아 계신거야.”

아이들의 질문은 계속되었고 그 질문들은 훌륭했다. 마치 석가모니의 화두처럼.

우린 보문사에서 절 밥을 얻어먹고 절 구석구석 구경하고 부처님께 인사도 하고 절을 내려와 얼마가 드릴 하회탈 목거리를 사서 목에 걸고 섬의 한자락에 있는 바닷가에서 놀았다.

그 바닷가에서 예쁜 돌도 줍고 한 아이는 갯벌에 넘어져서 온통 갯벌 맛사지를 하고 또 한 악동은 급하게 용아가 마렵다고 해서 통을 싸긴 씻는데 휴지가 없어서 비포로 어떻게 간신히 마무리를 해서(이 곤혹스러움이며) 다시 차를 올라타고 나올 수가 있었다.

나오는 길은 조금 일렀다.

그새 아이들은 노곤함에 앉아서 새우잠이 들고 우린 너무나 즐거웠던 강화도의 시간들을 뒤로한 채 열심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 1박2일 동안의 여행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의젓하고 용감했다.

이 소중한 경험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슬퍼질 때 열어보고 살며시 웃음 지을 수 있어서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 : 민박집 전화번호 (032) 937-1043

성공회 내리교회 천경배신부

어린이건강

아이의 특정행동에 대한 대응과 지도 · 훈련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공 ·

대소변 가리기

어린이에게 대소변 훈련을 너무 일찍 시키거나 너무 혹독하게 시키면 아이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는 아이가 생리적으로 성장발달이 충분하고,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성장발달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아이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신경학적 발달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신경의 발달은 천천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5세가 되어야 성숙하게 됩니다.

유아기때는 방광에 50cc 정도의 소변이 차게 되는데 소변이 차는 것과 동시에 반사작용으로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1-2세에는 소변이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생기기 시작하는데, 3세까지는 대부분 소변을 자기 의지에 따라 볼 수 있게 되어 낮에는 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소변을 가리는 시기는 조금 늦어져 4-5세가 되어야 80% 정도에서 야뇨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데 소변의 양도 이 시기에는 400cc 정도가 되어 성인과 비슷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소변을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신경학적 성장발달 사항으로는, 기저귀가 계속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 말라 있고, 조금씩 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양의 소변을 볼 수 있으며, 아이가 소변을 보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소변을 보기 전에 아이가 보채거나 끔찍대는 등의 몸짓이나 얼굴표정을 보면 아이가 곧 소변을 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힘이 충분히 발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여러 방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며, 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있고, 최소 5-10 분 정도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기가 아무리 신경학적으로나 근육의 힘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소변 훈련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따라 하지 못하면 안되므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충분히 이해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인식능력도 발달되어야 합니다(18~24개월이 되면 배뇨나 배변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됨). 인식능력의 발달 평가는, 눈, 코, 머리를 가르켜 보라고 하기, 앉거나 일어서보라고

하기, 다른 방으로 걸어가보라고 하기, 장난감을 가져 오라고 하기 등의 10가지 정도를 아이에게 시켜보아서 아이가 8개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아이의 인지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아이가 소변 훈련을 습득할 수 있는 생리적·정신적인 능력은 아이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20개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20개월이 되어서 상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평가에 잘못 되어서 아이가 소변훈련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 훈련을 시키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빨 때

아이가 습관적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행위가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것도 습관적 행동중에 하나이며 배가 고프거나, 부끄러울 때, 이가 날 때, 피곤할 때, 잠을 잘 때 잘 나타납니다. 엄마 젖을 먹는 아이와 풍부한 가정일수록 많이 발생하며, 부모의 과잉보호나 너무 엄격하게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무관심 등이 스트레스가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빠는 행위는 습관성 질환이기는 하나 영아기에는 거의 무해하므로 5세 이전의 아이는 특별한 치료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5-6세 이후까지 계속 빨면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며, 손가락에 염증이 발생하고, 아이가 미숙하게 보이며, 윗치아가 앞으로 쏠려 나오는 등 치아의 배열에 문제가 생기므로 5세 이전에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시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강제적으로 중지시키려고 하면 아이가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므로 혼내거나 조롱하거나 체벌 등으로 아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손을 빨 때 아이와 같이 놀아 주거나 장난감을 주어 손가락 빠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중지시키고, 아기에게 즐겁고 기분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해주며, 아이가 능동적으로 손가락을 빨지 않으려고 하면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는 방법 등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기타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손가락에 쓴 약을 바르는 것도 효과가 있으며, 입안에 치과 기구를 삽입하거나 손가락에 특수 기구를 착용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장갑을 끼우거나, 끈으로 감거나 하는 방법은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길바닥에서 떼를 쓰는 아이(분노발작)

아이가 길바닥에 넘어져서 발악하고 떼를 쓰면서 부모가 아무리 달래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 '분노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분노발작은 아이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부모가 다 해주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

는 할 수가 없으며, 왜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갈등과 분노, 좌절감 등이 복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벌렁 넘어져 손발을 차고 휘젓으며 발악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기타 어떤 행동을 취해보아도 전혀 반응이 없고 계속적으로 발악하고 떼를 쓰게 됩니다. 특히 18개월에서 3세 사이에 많이 발생해서 이 시기를 '미운 2살'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이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장과정이지만 습관화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아이의 갈등은 이해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만일 아이에게 어떤 형태로든 요구조건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이의 태도를 들어주는 것을 의미해서 아이가 앞으로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발악하고 떼를 쓰는 것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육체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약속을 하거나 흥정하지 말고 협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말로 타일러보고 진정되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면서 만일 안전한 장소에서 발악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행동을 전혀 무시하고 부모의 일을 계속하면서 전혀 반응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계속적으로 반항을 하며 떼를 쓰면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서 아이가 스스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발악하며 반항하는 아이에게 혼내거나 체벌을 가하면 오히려 더 반항심이 심해지므로 부모의 감정을 자제하면서 무관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조절되지 않으면 집 밖에서도 아무 장소에서나 떼를 쓰게 되는데 창피하다고 아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안되고 슈퍼마켓이나 거리 등 안전한 장소라면 비록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아이를 그대로 두고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부모의 태도도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자신을 잃고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현할 때 아이는 깜짝 놀라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아이도 그 방법을 배우게 되어 욕구불만이 해결이 안되면 때를 쓰며 반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도 평상시에 아이 앞에서는 화가 날 때 감정을 조절하며 지나친 감정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발작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3-4회 이상 발작을 하거나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동장애와 정서적인 장애와 관련될 수 있으며 자라면서 친구들과의 인과관계나 성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아이와 텔레비전 보기

아이가 4-5개월이 되면 눈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어 TV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아이가 TV를 본다는 것 보다는 앞에서 반짝거리는 빛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호기심에 불과하므로 너무 일찍 TV를 오랫동안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 성장하게 되어 돌이 지나게 되면 아이의 인식 능력이 더 발달하게 되어 TV의 교

육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언어발달이나 인식능력의 발달 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TV에서 나오는 내용은 일방적이고 아이는 그 내용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TV에서 나오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언어나 지적능력 발달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를 몰보며 하루 종일 TV를 켜놓게 되면 아이에게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엄마가 TV에 열중하게 되어 아이와의 접촉이 소홀해져 엄마와 아이와의 긴밀한 관계나 아이의 언어발달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울 때는 가정에서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에게 유아용 비디오만 틀어주는 것보다는 부모가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야기 해주며 아이와 직접 1:1로 접촉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이의 지적 발달이나 언어발달에 가장 좋습니다.

학동기 아이들에게는 TV가 수동적이지만 교육효과가 있어서 아이에게 흥미를 주고 상상력에 도움이 되며, 역사, 정치, 사회의 흐름과 여러가지 상식들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많을 정도로 많이 보게 되면, 평소에 독서를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며, 또래 아이와 놀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져 올바른 성격형성이나 인과관계, 건강 등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올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한 폭력적 행동들을 현실과는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TV에서 본 모든 폭력적 행동들을 모방하고 공격적인 행동의 모델로 삼게 되어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는 TV에서 본 잔학하고 범죄적인 행동을 모델로 삼아서 공격적인 행동이 더 많이 나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아이에게 적합한 내용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감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볼 때 평소와는 달리 TV의 소리를 자주 크게 틀려고 하면, 중이염 등으로 인해 청력 감소 때문에 그럴 수 있으므로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TV를 가까이 보면 눈이 나빠진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TV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시 등으로 눈의 시력이 떨어져 멀리서는 안보이기 때문에 자주 TV 앞으로 가려는 경향도 있으므로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과 대면하면 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는 F우래에 아예 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재차이는 사람 을 글썽기 좋아하는 사람 을 책도 많이 읽는 사람 을 발 났을 사람 을 동등 인간 하거든 을 양어
 사로잡힌 을 을 양하게 기다립니다. 그런 분, 연락주세요
 아, 그리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F우래에 아예 들이 있음 나가면 들의 글도 씁니다.
 깃 저희중요

『우리네 아이들』, 펴냄 (02)275-8506

신입교사교육(1)

우리도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이 됐다!

-신입교사교육을 하던 날-

·편집부·

조직에서의 새내기회원이 주는 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지부·지회와 중앙으로 신입회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신문을 통해서, 열린강좌를 통해서, 『우리네 아이들』을 통해서, 컴퓨터모임방을 통해서 그리고 입으로 입으로 한국보육교사회가 알려지며 관심을 갖게 된 보육교사들은 서서히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13일 한국보육교사회 제1회 신입교사교육이 있었다.

이번 신입교사교육은 각 지부·지회에 속해있지 않은 (준)회원이, 신입회원이라면 꼭 거쳐야 할, 정회원이 되려면 꼭 받아야 할 과정이므로 특별한 개인사유가 있는 회원을 제외한 12명의 교사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박정애조직부장의 사회로 1부 한국보육교사회 역사와 역할(남미영회장),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소개 및 현황(박정애조직부장), 2부 보육교사의 자기진단에 관한 토론(임남희부회장, 최순옥사무국장) 순서로 진행되었고, 공식적인 일정을 마친 후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뜻다한 답소를 나누

었다.

한 차례의 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담 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보육교사회의 전신인 지탁연시절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념을 일반적으로 설명해낸다면 과연 모두들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방식은 아닌데... 이런 고민을 집행부는 하게 되었고, 한국보육교사회를 알아내는 과정은 회원의 자격으로 활동의 경험 속에서 축적되는 것이라 판단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식 교육방법인 토론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 주제 '한국의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일'에서 사회적 평가와 교사의 평가기준이 일치하는지, 교사 스스로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토론은 일반적인 사회 가치기준인 교사의 질·경력·사회적 인식·품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였고, 교사 자신에게는 도전의식·자기개발·연구하는 교사·창의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건강의 문제, 임금·복지, 타성에 젖은 자세, 노력을 게을리하는 자세 등은 활동에서의 한계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주제 '보육의 질의 평가척도가 되는 교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가장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은 참석한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아이사랑·교육에의 요구·올바른 아동관의 수립, 특히 기억에 남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한 확신과 교육을 통한 변화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어느 교사의 의견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또한 기능적인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물론 기능이 차지하는 가치는 있으나 기능이 그 교사의 전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짧은 토론시간이 아쉽기만 하였다.

마지막 토론주제인 '보육교사의 질,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교사의 재교육기회 확대, 보육사업·보육교사의 사회적 인식 계몽 활동, 교사의 환경(복지)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직적 활동으로는 보육교사 모임의 필요성과 한국보육교사회에 거는 기대를 토로하며 보육교사조직(한국보육교사회)은 정보교환, 연구(토론)의 장 마련, 교육기회의 다양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가 주어지고, 또한 조직과 회원 개인의 상호작용 활성화 즉 조직은 개인의 사고와 능력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은 조직을 믿고 따르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인 개인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노력하는 교사' 이보다 아름다운 결의가 있을까? 몇번 몇백번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말, 노력! 항상 노력하는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전진하는 교사가 되고픈 한국보육교사회 신입회원들.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직업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애정으로 쉽없이 변화하려는 새내기들의 의지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앞날이 희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토론을 마치고 정회원이 되는 기념식, 기념식이라고 해야 소박한 회원증을 나누는 것이었지만 한국보육교사회의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시간이라 의미가 더했다. 회원증을 받은 회원은 김미선선생님(서울, 바름어린이집), 서미연선생님(서울, 우리어린이집), 이미옥선생님(서울, 다우리어린이집), 이승희선생님(서울, 통통어린이집), 이유미선생님(춘천, 중부어린이집), 이양희선생님(서울, 햇살어린이집), 전경희선생님(경기, 차일드스쿨), 진경선선생님(서울, 거평어린이집), 정문경선생님(서울, 거평어린이집), 장윤정선생님(의정부, 희망어린이집), 조선미선생님(서울, 햇살어린이집), 황호정선생님(서울, 우리어린이집)이다.

한국보육교사회 한 가족이 되신 것을 한국보육교사회 전회원은 환영 또 환영한다.



신입교사교육(2)

제1차 신입교사교육을 다녀와서...

장윤정 · 경기도 의정부 희망어린이집 교사

한국보육교사회의 첫발을 디디기까지는 그렇게 짧지도 쉽지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고 신입교사 교육에까지 참여하게 해주었다.

첫 동기유발은 1997년도 봄 '일본 다케와 리 연구'에 참가 후 기념사진과 함께 동봉된 '우리네 아이들'이란 흑백의 인쇄물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저 한국의 인쇄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조금의 호기심 등등... 그리고 한 5개월 후 그 인쇄물은 책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고 빛을 발하며 내게 '다시 보여주세요' 하는 듯 재미있고 조금 밀도있게 내게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심하고 난 보육교사회의 회원이 되기로 했다.

유아교육과의 인연은 14년의 세월이 흘러 내겐 아이들과의 하루일과가 몸에 밴 속옷과도 같은 그다지 큰 의미들이 내게 존재하지 않았었다. 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겨온지 꼭 2년, 무엇을 그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왔는가? 난 도대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할 줄 모르는 구조적인 유아교육의 방향이 많이 변화했노라고 그리고 변화하려고 수없이 노력했노라고 그들은 말하려 하지만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지... 하는

여러가지 의문들과 회의가 의문들과 회의가 물 밀듯이 머리속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었다.

"1997년 12월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첫 모임으로 신입교사교육이 있습니다. 꼭! 와주세요" 그말에 중요한 약속을 뒤로 한 채 평화의 집 강당으로 발걸이 옮겨졌다.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내게 그동안의 회의와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보육교사로서 사회적인 평가와 내 스스로의 평가 등 보육교사로서의 자기진단이라는 토론내용은 참석한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진지한 토론중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교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자기개발을 통하여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것과 교사로서 어린이를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겠다는 예쁜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한국보육교사회 신입교사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알게 되었으며,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보육운동이 신입교사들을 통하여 전개가 되리라는 확신과 더불어 80년대 이래 지금까지 타아와 보육이라는 정점을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이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따가운 별을 피하려 큰 나무 밑을 찾아 뛰어든 그 기분이 들었다. 한국보육교사회에 발을 디딘 지금, 근간 갑자기 양만 부풀려 보육입네 하는 제도적인 보육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목소리를 높이느라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이다.

끊임없이 어린이 미래를 위해 누군가 신입교육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의 미래를 가르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 모임이 보육사업의 전문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연구활동과 가장 핵심으로 돌아가서 질적인 보육정책이 개선되어지도록 실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과 아직 나의 미숙한 생각들이 보육교사회의 바른 방향제시로 정리되어 발전되어 다져지리라 소망해본다.

1997년 12월이 거의 다가고 있는 한날
신입교사 장윤정

신입교사교육(3)

나,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됐지...

김미선 · 서울 서초구 비롬어린이집 교사

어느 조직에서든 신입·새내기라는 말은 많은 기대감과 설렘, 어색함을 준다.

신입교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에 '과연 무슨 내용일까?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랑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여성평화의 집을 찾았다.

'이런, 더군다나 지하강당에서 하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웬지 안에서는 기척마저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가,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때론 문 열어 열고 들어선 순간, '아니 겨우 한명!' 선생님들이 애들을 보내고 오기에는 조금 빠른 시간이라 그런지 내가 두번째로 온 신입교사가 꽤 버렸다. 다른 선생님들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회원교육을 준

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의 이런저런 얘기들... 다우리 선생님이 사오신 맛있는 떡과 따뜻한 차가 마음을 더욱더 훈훈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아주 마음 좋은 아줌마처럼 보이는(알고 보니 정말 모두가 아줌마였다) 회장님 이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따스한 미소(아부가 너무 심했나?) 때문에 그리 지겹지 않게 기다렸다.

좀 많이 늦게 시작했지만(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촉박했다. 기념촬영도 제대로 못했고... 화장까지 하고 갔는데)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참가하셨다. 춘천에서 오신 분, 아이 재롱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의정부 선생님... 좀더 나은 교사로 서고자 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간략하게 진행된 한국보육교사회의 역사와 역할, 그간의 활동소개와 소모임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신입교육의 하이라이트였던 보육교사의 자기진단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처음 접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익명이 주는 효과가 대단함을 느꼈다), 표현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분류, 거기에 대한 간단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놀라웠던 건 자기발견, 자기충족에 대한 욕구들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과, 놀라운 열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쉬웠다면 시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신입교사교육(4)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자료를 읽고

황호정 · 서울 성북구 우리어린이집 교사

신입교사교육을 마치고 자료집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 중 하나의 주제에 대한 리포트를 써서 사무국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황호정선생님여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임재택 부산대교수 글)를 읽고 본인의 생각을 보내주셔서 신입회원의 고민과 각오를 나누고자 실습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도 보육교사회에도 과제가 많이 남는 신입교사교육이었다. 다양한 그리고 정열적인 우리 교사들의 고민을 앞으로 보육교사회는 어떻게 받아안아 심화시키고 한국보육교사회의 특징으로 가져갈 것인가와 교사 스스로는 보다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한 현장에서의 고민과 실천 또한 이를 어떻게 교사회로 모아져 보다 나은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아직은 어색하고 많은 애정이 생기진 않는다. 왜냐면 난 아직 새내기니까...

하지만 새내기라 좌충우돌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두려울 것은 없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노력이나마 아끼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려보리라.

들어가며

지난 1997년 7월 4세 아이들과 함께 1박2일의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선생님과 아이들도 처음 가는 캠프여서인지 긴장도 많이 했지만, 잘 따라주는 아이들 덕택에 잘 다녀올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돌아와서 차랑운동에 동승하게 됐는데, 차에서 내려 길가에 서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다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들에게 칭찬도 해주고, 편에는 5세 아동들보다 4세 아동 부모에게 설명도 길게 하고 칭찬을 더 해주었다. 그날부터 5세 아동의 한 부모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교사로서 차별을 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학부모와는 절친하게 지내며, 어린이집의 투명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인정도 받고 많이 도와주는 학부모 회장이었다...

다른 교사의 도움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나아졌지만 한번 상처 받은 것이 원상복구되지는 않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처럼 좌절감·무력감·상실감 등을 느끼며, 정말 나의 마음이 그러했는지를 물어보며, 교사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나름대로는 이제 교사경력 2년밖에 안됐지만,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됐고, 나중에는 우스개 소리로 보육교사는 서비스직이라는 얘기를 교사들과 나누기도 했다. 그때 마친 설문지에 응할 기회가 있었는데 훗날에 서비스직에 표하기도 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물론 나는 보육교사는 전문직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는다.

네 가지의 알찬 내용(신입교사 자료집 부록)중에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느낌을 적고자 한다.

본론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차 변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보육교사를 전문직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육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긍지를 느꼈으면 좋

겠는데, 타인들이 보육교사에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안주한다면 어떤 누구를 대할 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인식도가 그러하듯 개인적 인식도는 더욱 낮다는 생각이 든다. 글에서 나타나듯이 보육교사들은 우리의 보육현실을 비판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안목과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적 노력의 주체로서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의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할 중에 나는 몇개나 해당되나 체크해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품성에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아니겠는가!

보육교사에게는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한 명의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수련과정 같다. 우리 교사들끼리는 우스개 소리로 '도'를 닦는다는 얘기도 한다. 사회운동, 연구운동, 실천운동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보육실천가로서의 자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마무리

나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시작으로 보육현실의 중요한 세력인 교사모임이 생겨서 너무 좋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자랑스럽고 내가 회원이 되었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소중하다.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로 당당히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한국보육교사회 조직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믿으며 한국보육교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나의 생각대로 표현을 잘 못해내지만 신입회원으로 첫 과제를 꼭 수행하고 싶어서 앞뒤가 안 맞는 글을 보낸다.

보육정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12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각 시설에서 참고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및 요건 등 신설

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규칙 제24조의 4)

-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 차체의 색상은 황색
-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도록 제작
- 표시등은 적색과 황색으로 하여 버스앞면과 뒷면 상단부에 각각 설치
- 차체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사경 설치
- 승강구 1단의 발판 높이는 30cm 이하, 2단의 발판높이는 20cm

나.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절차 (규칙제24조의 2)

- 어린이 통학버스로서의 요건을 갖춘 후, 신고서를 시설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시설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관리실태 파악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

- 경찰서장은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은 자동차 전면 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회수 사유의 사유를 명확히 함 (규칙 제24조의 3)

-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학원 등의 시설이 폐쇄되어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목적이 상실된 때
- 고장, 그밖의 사유로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교통법칙금 신설

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법 제48조의 5

- 범칙금 승합 7만원
- 벌점 : 15점 부과
- **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아니된다.

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위반 : 법 제48조의 3

- 범칙금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 벌점 : 10점 부과
- ** 제48조의 제1항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증인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때에는 다른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 ** 제48조의 제3항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가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제48조의 3내지 5)

-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하며 좁은 도로(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동일의무 부여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대상 차량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자동차
-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중 주로 어린이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자동차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절차 및 요건 등 → 내무부령에 위임

세상읽기

호랑이의
숨결을
느끼며
맞이한
새해위양자
본회 부회장

"그래서 나는 김대통령 당선자에게 작은 희망과 바람을 감히 가져보려 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 이제까지 어떤 후보도 찾아가지 않던 투표권 없는 어린이들을 찾아가 만났던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만을 기대한다."

백두대간을 누비던 호랑이의 숨결을 컷가에 느껴보자. '98년의 해는 참 쉽게도 밝았다. 크게 숨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숨가쁘던 날들이었다. 하룻밤 자고 나니 눈뜬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허리를 졸라매자고 호들갑을 떠는 것으로 무인년 새해 해는 뗏다. 이렇듯 자고 나면 '98년일걸, 무엇때문에 '97년 내내 잠 못이루며 뒤척여야 했는지?

어느 누구도 다른 해처럼 내놓고 선거혁명을 말하지 않았고, 설마가 사람 잡을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까 노심초사하며 애써 속마음을 들어내려 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97년을 마감하며 오랫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기분 좋게 한잔 술을 땀가없이 서로 나누기도 했다.

이제 텔레비전을 칩 틀면 '김대통령 당선자께서는...'으로 시작하는 뉴스를 매일 보게 되었다. 머지않아 '김대통령께서는...'으로 시작하겠지만. 벌써부터 퇴임도 안한 현직 대통령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못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내몰려져진 느낌이다.

'98년의 대통령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자각을 갖고 대통령을 뽑고자 했던 3번째 참여에서 당선되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김당선자를 지지했으나 이번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간의 투표를 통해 어떤 당선자도 내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그간의 어떤 당선자에게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람이 많다.

내가 이번 대통령에게 바람을 갖는 것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서가 아니고, 단지 우리 가정의 파괴를 일단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들어 내내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후보가 당선이면 최소한 5년은 이 나라를 등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나의 반쪽이 12월 들어서면서는 아예 남아프리카라는 나라까지 정해놓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댔다. 난 진담반 농담반으로 현대통령 아래서도 살았는데 이제 더이상 누군들 이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냐고 대꾸하면서도 내심은 불안했었다. 사실 나의 반쪽이 두려웠던 것은, 대통령의 실정에 의한 먹고 살기의 어려움 이전에 좁은 평당어리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야 할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믿음에 배반당할까하는 시민의식에 다름 아니었음을 잘 알기에. '뭘꺼야, 우리 국민들 그렇게 종이호랑이 아니야라며 자신을 갖으라고 했다.

'97년을 마감하며 우리 국민들은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백두대간에 아직도 살아있을 한국호랑이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국민으로 '98년을 살아가자 결심했다. 나의 반쪽은 이 땅에서 망치 휘두르며 돈은 덜 벌려도 내 새끼들 배고프지 않으면, 아직도 멀기만한 우리의 반쪽 북

한동포들의 굶주림을 면키 위해 단돈 100원을 돼지저금통에 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가정으로 지키기 위해, 신명나게 일하기 위해 이 땅에 발 붙히고 살기로 했다. 난 온국민에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김대통령 당선자에게 작은 희망과 바람을 감히 가져보려 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 김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동안에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을 만나보았듯이, 당선이 확정된 후 다시 어린이들을 찾아가 만났듯이 이제까지 어떤 후보도 찾아가지 않던 투표권 없는 어린이들을 찾아가 만났던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만을 기대한다. 국제구제금융의 위기라고 해서 더이상 후퇴할 복지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는 현실을 잘 아시리라 믿으며, 이제까지 시설 운영자면의 중심으로 정책수단위주로 시행되던 복지정책을 정책목적과 수혜자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올바른 복지의 관점을 재정립하고 참으로 어린이의 입장에 선 영유아복지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를 바란다.

이 나라의 국민이며 아이들의 엄마이며 한 가정의 주부인 나로서는 새해를 시작하며 나의 반쪽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 온국민에게 감사하며 믿음을 가져보듯, 21세기 한국보육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로서 한국보육교사회와 전국의 보육교사들이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쁨을 함께 나눌 기대와 바람을 가져본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자기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일터로 채워나가기 위해 새끼호랑이 한마리를 키워보려 한다. 함께 키울 사람들에 대한 믿음 한 가지로.

본회에 온 연가장 중에서...

'97년 한해를 보내며, 중앙사무실의 회장님 어하...

창으로 더운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여라 느껴겠습니다. 회원에 대한 헌신성과 애정에 속속 느껴질 때면 가슴 끌어 참 모한 감정으로 휩싸여곤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나 끈기있게 포근했던 회장님. 기쁘게 그리고 인내하여 변화하려 했던 임남희부회장님. 사랑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힘든 일 묵묵히 참아 내며 오히려 회원들을 위로하려 했던 최순우경애선생님. 또 어렵고 고난한 연구소 일을 하며 즐겁게 생활하시는 정희연·이선국선생님. 참 가슴 벅찬 사람들을 알게 되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20대에는 안그랬는데 30대의 1년은 너무나 빠르고 갑작 같네요.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들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일을 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어려운 경제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극복합시다. 약! 뭘 경제!

인정회원들이 중앙일꾼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면서...

● 폰트 ●

눈이 내리네...

박화명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교사

“우와~ 눈 온다. 눈. 언니 일어나 봐. 눈이 펄펄 내려.”

동생의 고향소리와 뒤이어 벌떡 일어나는 문소리에 유선생은 오랜만의 늦잠에서 깨버렸다. “저 기집에. 눈이 오면 오는 거지. 왜 남의 잠까지 깨워?” 투덜거리며 이불에서 나와 세수를 하고는 아침밥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는 외출준비를 서둘렀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핀잔을 주셨다.

“쉬는 날 어디 가나? 눈도 오는데 데이트라도 가나?”

“어머, 얼마... 언니가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말해도 잠 깬다고 야단야단인데. 포기해.”

옆에 있던 여동생은 미운 말만 골라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노처녀가 어찌고 시집이 저찌고 하시면서 레퍼토리를 시작하셨다.

“어린이집 일 있어서 나가요. 다녀올게요.”

유선생은 안짱은 기분을 누르며 눈 내리는 거리로 나섰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좋은지 거리엔 유난히 젊은이들이 많았고 아침부터 ‘눈’이 화끈이 되어 기분이 상한 유선생님에겐 함박눈도 성탄절도 짜증스럽기만 했다. 어린이집에 들어서자 동료교사들은 벌써 나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일 있을 어린이집 행사 준비로 휴일을 반납하고 나와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했다.

“유선생님, 오셨어요? 다행이다.”

“왜요, 박선생님?”

“실은요 무대에 걸 부직포 글씨를 새겨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글씨 잘 쓰시잖아요. 해해~”

초보교사이지만 이번 행사의 기획을 맡아 열심히 뛰는 박선생은 애교까지 부리며 부탁한다.

“그래요. 같이 해서 빨리 끝내게요.”

유선생은 부직포를 꺼내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사실 이번 행사는 시설에서는 처음 해보는 행사이다. 작년까지는 매년 연말에 ‘00어린이집 신나는 재롱잔치’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하여 부모님들께 선보이고 격려(?)받는, 그러나 별로 신나지 않는 행사를 했었다. 그러던 것이 하반기 초 행사 준비회의 시간에 신참 박선생의 끈질긴 제안으로 ‘어린이집 가족 송년잔치’로 꾸며 보기로 한 것이다. 그때 박선생은 “아이들 의사와 별 상관없이 여러 달 고생시켜 춤이며 연극이며 무대에 올라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하는 게 과연 아이들 잔치 그것도 신나는 잔치가 될 수 있을까요? 교사로서, 아이들이 일상의 놀이와 생활을 연습시간에 뒀기하고 또 잘함과 잘못함에 따른 비교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상처는 돌아볼 틈도 없지요. 오직 멋진 무대, 화려하고 튀는 의상 준비, 부모들간의 과시욕 사이에서의 잔치, 교사끼리의 작은 경쟁 등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떨어지지요. 이왕 하는 행사라면 어린이집의 모든 구성원인 교사, 아이들, 부모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준비하고, 즐기고, 나누는 의미있는 행사가 더 좋지 않을까요?”라며 절절하게 제안했었고 교사들은 동의 반, 걱정 반으로 의논을 했었다.

어쨌든 박선생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어린이집에서는 연말의 의미와 어린이집 모든 구성원들의 참가를 염두에 두고 ‘어린이집 가족 송년잔치’를 하게 된 것이다. 실제 준비에 들어가니 할 일은 훨씬 많아졌고 오늘처럼 휴일까지 일을 했지만 유선생은 보람도 느꼈다. 자모회와 같이 준비회의를 하면서 행사의 의미에 대해 어머니들까지 폭넓게 이해해주셨고 그것이 힘이 되어 주었다. 게다가 아동상담 때마다 늘 거리감을 느끼고 교사의 견해에 별 신뢰를 안 주시는 것 같았던 영수엄마와는 노래자랑 준비를 함께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그덕에 영수에 대한 상담도 일관되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유선생은 평가한다.

드디어 26일 저녁!

00어린이집 공동놀이실에서는 욕지지껄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민경이 할머니도, 재윤이엄마도, 수연이아빠도, 박선생도 노래며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고 시루떡을 썰어내는 경은이엄마의 손길도 분주하기만 했다.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1년동안 놀이활동으로 익힌 장구를 두들기며 장단과 흥을 돋궈 주었다. 사회를 보던 유선생은 연신 웃음을 터뜨려 실수를 했지만 눈치를 받거나 부끄럽지 않았다.

잔치의 마지막 순서는 모두 손잡고 하는 ‘강강술래’였다.

“손에 손을 잡아보세 강강술래. 어린이집 가족 모여 강강술래...”

선생님들 놀아봐라. 강강술래. 아빠들만 놀아봐라 강강술래...”

한참 흥이 높아져 폴짝폴짝 뛰는데 누군가의 고향소리가 들렸다.

“우와. 눈 와요. 밖에 좀 보세요.”

사람들은 넋을 놓고 함박눈이 소담히 내리는 풍경을 구경하느라 잡은 손을 놓을 줄 몰랐다. 민경이 할머니는 “와따. 어린이집 잘 달라갑네. 하늘의 복이여.”하시면서 멋진 덕담을 해주셨고, 마이크를 잡은 유선생은 이에 질세라 한마디 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의 함박눈은 영 아니더니, 오늘 가족잔치 날 함박눈은 원지 아니 무조건 좋은데요. 우리 소원을 빌면서 놀아보게요. 자 제가 먼저 메깁니다. 노처녀선생 시집 가고(우허허허~) 강강술래, 엄마·아빠 일 잘되고(용지) 강강술래,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그래야 제) 강강술래...”

신나는 노래가락은 쏟아지는 함박눈에 담겨 세상 밖 멀리멀리 퍼지고 있었다.

탁아소별곡

송이랑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이야기 하나 · 놀이살매경

책상에 앉아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던 권한중(4살 남)과 박동휘(6살, 남).

박동휘 : 한중아!

권한중 :

박동휘 : 한중아!

권한중 :

선생님 : 한중아, 동휘 좀 불러라~

권한중 : 뭐 주라고요?

☺ 이야기 둘 · 그것도 정답이네!

신정을 즈음하여 한 일주일 정도 할머니 댁에 다녀오느라 어린이집을 쉬었던 친구(권한중)가 오랜만에 왔다.

선생님 : 한중아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권한중 : 안녕하세요~

선생님 : 우리 한중아 어디에 갔다 왔어요?

권한중 : 으응~, 남탕어요!

선생님 : 으응?

생각해보니, 동원할 때 아빠와 함께 왔던 것이었다!

여번 탁아소별곡은 민청보육교사회 사무국장으로 수고하시는 고경대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시설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깨닫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행복(나아)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네요.

☺ 이야기 셋 · 짝아주세요(1)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시장놀이를 하고 있었다. 신발을 벗어 놓고 놓고 있는 친구들의 신발을 모두 모아서 신발 가게를 차린 김정진(4세, 남).

김정진 : 신발 사세요!

선생님 : 신발 얼마예요?

김정진 : 어천원어요!

선생님 : 에이~, 너무 비싸요. 짝아주세요!

김정진 : (눈을 동그랗게 뜨고-순간, 선생님도 긴장을 한다-선생님을 쳐다보며 정색을 한다.) 나, 까까 없어요!

☺ 이야기 넷 · 짝아주세요(2)

손을 머리에 얹고 선생님께 다가오고 있는 박동휘.

박동휘 : 포도 사세요!

선생님 : 포도 얼마예요?

박동휘 : 패천원어요(팔천원어요).

선생님 : 어휴, 너무 비싸요. 짝아주세요!

박동휘 : 네~

엄지와 검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 껍질을 깎는 흉내를 내더니 선생님께 건네주고 나서 다른 곳으로 유유히 사라진다.

☺ 이야기 다섯 · 짝아주세요(3)

손을 머리에 얹고 선생님께 또다시 다가오고 있는 박동휘.

박동휘 : 케익 사세요.

선생님 : 케익 얼마예요?

박동휘 : 패천원어요(팔천원어요).

선생님 : 어휴, 너무 비싸요. 짝아주세요!

박동휘 : (울상이 되어서 소리친다) 케익은 껍질을 깎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목소리(1)

문득 떠오른
7년 전의 아이들

김정희 · 자료회원

지금으로부터 7년전.

도시에서의 유치원교사 생활이 너무 복잡해 군단위 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골 아이들의 순박함이 너무 좋았다. 모두 귀여웠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읍에 사는 20명 정도와 농촌에서 농사짓는 집 아이들이 20명 정도 되었는데 농촌일이 바쁘다보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일은 적었다. 그러다보니 5명 정도의 머리속에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 작고 짝짝하고 까만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나 보다. 어린이집은 점심식사후 수면시간이 있다. 카펫을 4개 정도 깔고 모두 누워있는데 그 '이'들은 가솔을 한다. 이 집, 저 집으로.

한 마리도 아니고 할아버지이, 할머니이, 아빠이, 엄마이, 삼촌이... 등등 모두 이사를 다닌다. 그러다 보니 어느날 반 전체 아이의 머리속이 모두 '이관'이 된 것이다. 나 또한 수업하며 극적극적, 상상을 해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는가.

악곡 가서 제일 효과 좋은 이악을 사와 반아이 모두에게 발라주었다. 약사님 말씀이 따뜻한 햇볕 아래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이들이 모두 빠져 나간단다.

그날 수업은 없었다. 대신 이 잡는 날이었다. 못 위에 걸친 비닐 위로 기어 내려오

는 귀여운 이들. 40명 모두 어린이집 뒷마당에 쭉 앉아 이 잡던 일.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 아이들이 보고 싶다.

김정희선생님은 군산에서 백면무로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문득 아주 오래된 여가 하나 생각해 냈다며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그 시절 얘기로, 글을 보내주신 김정희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목소리(2)

범피의 소망

임민행 · 경기도 부천 원광어린이집 교사

새해라...

벽에 새 달력이 걸리듯 모든 것이 깨끗이 새롭게 시작되어지지 않는 까닭에 지난 해의 고민을 그대로 안고 아침을 맞이한다. 내게 '97년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한 해? 그랬다.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했고 그 '버리는 것'마저 집착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대신 여러 가지를 얻었다. 특히 인천보육교사회와의 만남이 그랬고 그 소모임 속에서 난 숨이 트였고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애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음악을 끈질기게 좋아하게 되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할 때 드는 생각이 있다. '다양한 기준이 공존한다는 것.'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굳이 누가 틀리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작년초 교육관에서 무척

혼란스러웠다. 이젠 하나씩 나는 나의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야 밥도 잘 먹고(원래 잘 먹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이젠 집착이 아닌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년동안 워낙 생각없이 사는 것을 훈련(?)하다 보니 이젠 바보가 된 듯하다.

또 한가지, 꼭 이루고 싶은 거 하나. 술 좀 잘 마셨으면... 누가 나보고 촌스럽게 술도 못 마신다고 구박했는데 두고 봅시다. 하하!!

아! 무인년 새해

올해는 사람과 사회에 신뢰를 쌓아 가는 더 이상의 상처가 없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내게 이런 기대를 갖게 해준 주위 분들께 진정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이제 나는 다시 걷는다. 숙인 고개를 치켜세우고 팔자가 드세다는 호랑이띠임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들의 목소리(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경선 · 서울 강서구 거평어린이집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거평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경선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범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망을 적어내는 연락을 받고 많이 고민했어요. 저의 소

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저의 소망은 첫째, 보육교사인 만큼 아이들과 더욱더 친숙해지고, 진선생님하면 좋은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어느 보육교사라면 저와 같을 것입니다. 둘째, 더 나아가 특수아동에 관한 것을 배웠으면 해요. 그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수화도 배우고 싶고 다른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셋째, 결혼이에요. 남자친구는 있나고요? 물론 있어요. 울산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으면 뭘 해요. 명절에만 며칠씩 있다가 가고, 한 달에 한번 율가말까하는 애인인데... 그래도 결혼은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할지... IMF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애인. 한편으로는 좋지만 여자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항상 옆에 있어주길 원하잖아요. 안그래요, 선생님들? 네제, 건강이에요. 건강해야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즐겁고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지요. 다섯번째, IMF시대인 만큼 아끼고, 저축하며 알뜰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섯번째, 한국보육교사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일곱번째, 한국보육교사회의 무궁한 발전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바라시던 모든 소망이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퍼즐 퍼즐(제5회) 정답은 19쪽에.

1		2		24		26		27
		3		4		25		28
				5	6			
			18					29 30
13	14			7		8		
			19 20			9		
15	16					10		
				21 22		11 12		
			17		23			

<가로열쇠>

- ①1907년 일본에 대한 구한국의 죄책이 너무 많자 국민이 금언금주운동으로 정부의 빚을 갚자고 서상돈이 제안했던 운동으로, 요즘 우리나라의 달리나 금 모으기가 이와 같은 성격이라고들 하지요.
- ②한 절을 책임지고 알아보는 승려.
- ③올해는 ○○○. 호랑이의 해입니다.
- ④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해 본인이 가지는 권리. 내 얼굴이 허락 없이 광고에 나온다면 그건 명백한 ○○○ 침해지요.
- ⑤「목걸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외국작가.
- ⑥「어린이와 환경」 국제학술회에서 프로스트박사는 아동의 실외놀이 공간을 ○○적인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월호 47쪽을 보세요.
- ⑦죽제비과의 짐승으로 강기슭이나 늪가에 굴을 파고 삽니다.
- ⑧김시습이 지은 한자로 된 전기체의 소설로, 명나라의 「전통신화」를

모방한 것입니다.

- ⑨적으로부터 자기편의 행동을 숨기려고 인위적인 연기를 낼 때 포탄이나 폭탄을 말합니다.
- ⑩음식을 먹고 나면 간혹 이가 나와서 땀방스럽죠. 교육~ 껌~
- ⑪언론사에서 기사를 모으거나 보도하는 사람.
- ⑫재산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문서를 뜻하는데요, 협의로는 주식이나 채권을 말합니다.
- ⑬2월 8일은 한국보육교사회의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하는 날이지요.
- ⑭기업들이 대규모 강원이라는 방법을 요즘 택해서 목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농담도 생겼죠.
- ⑮IMF시대, 경제회복도 좋지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만 ○○○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⑯일의 진행이나 사물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할 때 '○○을 건다'고 합니다.

<세로열쇠>

- ①International Monetary Fund. 우리나라가 요제 이것 때문에 간신히 국가부도는 면했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기도 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 ②유아교육제도 개혁과 5세아 무상교육은 ○○○○적 관점에 입각,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12월호 19쪽 참조.
- ③원 고함과 원 장삼으로 치장하고 추는 민속무의 한가지. 조지훈의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 ④겨우살이 덩굴로 한방에서는 약재로도 쓰임. 요즘 김대중씨를 가리키는 말로 더욱 많이 쓰이지요.
- ⑤목적을 위해서는 인정이나 도덕도 가리지 않고 권세와 모략, 중상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쓰는 술책.
- ⑥새해가 되었으니 집집마다 이거 바퀴 달았겠네요. 일년의 날짜를 월마다 구분하여 적어놓은 거지요.
- ⑦사람이 겨우 거처할 정도로 작게 지은 집을 이릅니다.
- ⑧교사가 보육활동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아동, 동료, 부모 등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따위에 따라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적 견해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을 ○○일기라고 합니다.
- ⑨삼라바의 하나. 싸인, 코싸인, ○○○
- ⑩겨울에는 특히나 너나 없이 불조심! 어린이집마다 이거 하나씩은 있으시겠죠?
- ⑪보육계에도 이제 ○○○시대가 오려나 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사회적 인식도 조금은 높아지겠죠?
- ⑫한 손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든 작은 종.
- ⑬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 ⑭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정해진 바로 그 나이.
- ⑮덜 마른 장작을 가리키는 말로, 가수 구정모가 예전에 이 제목의 노래를 불러 히트시켰죠.
- ⑯기름값, 실탄값, 버스비에 각종 세금까지 이렇게 값이 쾜다 오르는 때를 ○○○시대라 하지요.
- ⑰몸의 열을 내리게 하는 약.
- ⑱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

보육계 풍향

한국보육교사회 정기총회 및 교사수련회

일시: '98년 2월7일 오후 4시
- 8일 낮 12시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회비: 2만5천원 (숙식비 포함)

숙박 안할 시 1만5천원

준비물: 현장연구일기, 각

자 근무시설의 홍보물

(브로셔, 오리엔테이션

자료, 행사 포스터 등).

교육계획안 견본, 필기

도구, 세면도구

■ 교사소모임 발표

각 지회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모임에서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뽐냅니다.

■ 강연 '98 사회복지 상황과 보육사업의 전망

IMF 한파라 불리는 우리의 현 경제상황이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분석과 보육사업에 대한 전망을 해봅니다.

■ [아이들이 실천하는 생활중심 환경교육]

이 연구는 본회 부설 한

<일정표>

날짜	시간	2월7일(토)	날짜	시간	2월8일(일)
			08:00		아침식사
			09:00		교사 발표
			09:30		총회
			12:30		폐회식
16:00		개회식			
16:30		교사소모임 발표			
17:00		'98 사회복지상황과 보육사업의			
18:00		전망(김연명교수)			
18:30		저녁식사(도시락)			
19:00		아이들이 실천하는 생활중심			
20:00		환경교육(한국보육정보연구소)			
20:30		현장연구 Work Shop			
21:00		교사 소모임 발표			
22:00		(소고춤/전래동요)			
23:00		공동체놀이			

국보육정보연구소가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으로 '97년 하반기동안 연구작업한 것으로, 기존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자연친화동에게 부적합한 내용이 많았고 이론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개선하여 4,5,6세 어린이에게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연구 발표합니다.

- 아이들이 실천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 자연체험 캠프

- 부모교육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장연구 워크샵

이 워크샵은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연구일기를 통한 교사의 그룹작업'을 지부에 확산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연구소모임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러분이 연구일기를 써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연구일기 작성시 참조할 사항

<연구일기에 들어갈 내용개요>

1. 시설에 대한 개략적 소개 (교사수, 아동수, 시설환경, 기타)

- 문제제기(주제 설정)-문제의 범주를 정한다.
-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 구체적 목표설정 또는 질문제기-문제제기에 대한 목표설정
- 제1관찰 :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관찰, 평상시대로 교사의 개입 없이 관찰을
 -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
 - 관찰결과 정리
-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계획
- 제2관찰 : 새로운 시도를 겸한 관찰-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
- 종합적 의견
 - 과정 속에서 동료교사, 원장, 교사와 협력작업한 내용
 -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갈등, 새로운 문제제기, 분석, 새로운 질문
 -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창작동화·동시 공모 안내

유아들에게 적합한 소재의 동화·동시를 발굴, 보급하여 유아들의 언어·정서·사회적 발달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창작동화·동시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응모대상 : 동화·동시 창작에 관심이 있는 성인, 학생, 어린이(기성작가도 출품 가능)
- 응모내용 : 모든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주제를 다룬 동화·동시
- 분량: 동화-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동시-200자 원고지 3매 이내
- 마감: 4월30일 도착분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2 한국어린이육영회 연구개발실 연구과 창작동화·동시 공모 담당자(앞전화) 02-425-1673, 9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지부 제2기 보육학교

일시: '98. 2. 13(금), 14(토), 20(금), 21(토)
장소: 광주 불교교육원
회비: 미정
내용: • 국악교육-임수정(중앙대 국악과 강사)
• 건강교육-나백주(소아과 전문의)
• 한지를 이용한 환경구성-정순임(본회 명예회원)
• 교사의 자기진단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지부
문의: 광주보육교사회(도담도담어린이집 062-228-6786, 담당자 박화명, 김영금)

신간도서

오소리네 집 꽃밭

글/권정생, 그림/정승각, 정가/6,000원, 대상연령/4세-8세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모든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책.

사람들은 모든 것에 손을 대어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지요.

이 책에서 오소리 아줌마는 꽃밭을 만들려다가 나중에 그 일을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흙속에 뿌리내린 모든 생명들은 그 자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권정생선생님은 오소리네 집 꽃밭을 통해서 자연 속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사람보다 더 귀할 것도 없고 하찮을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면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오소리네 집 꽃밭〉은 아름다운 내용과 함께 우리 옛그림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정승각 선생님의 그림이 어우러져 아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전해 줄 것입니다.

소식과 소식

여성정책 기본계획 설명회

제2정무장관실 주최로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설명회가 1월16일(금) 11시부터 63빌딩 글로리아룸에서 있었습니다.

1998년~2002년까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각 여성단체 대표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으며 특별히 여성부 신설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본회의 남미영회장과 보육정보연구소의 정희연소장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서울시 주최로 서울시 여성지도자 초청 신년인사회가 1월15일(목) 11시부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활동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찬

을 함께 하였습니다. 본회에서는 남미영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 후원의 밤

본회가 소속되어 있는 여연은 12월27일 연강홀 OB 프라자에서 후원의 밤을 하였습니다. 본회 사무국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우미를 했고, 6시부터는 본회 회원 약 20여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송년회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시민단체, 여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술도 많이 마시고, 비싼(?) 안주도 먹고 해서 여연의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본회 이사회 합숙

본회 새해 첫 이사회는 '97년의 사업평가와 '98년 사업방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월2일에 걸쳐 사무실과 씨익이어린이집을 오가며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지역회장·연구소가 참석하여 지역사업평가(계획), 중앙부서별 평가(계획), 연구소평가(계획)와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요 사업기조는 '한국보육교사회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사업과 조직안정화·확대사업'으로 중앙, 전지역이 혼연일치하여 발전하는 한국보육교사회를 만들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여성평화의 집 송년의 밤

12월8일 여성평화의 집 단체대표와 실무자들이 모처럼 모여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임과 선물교환, 맛있는 음식과 정담이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건강교사모임

12월-1월에는 2기 모임 오리엔테이션, 태아의 성장을 주제로 모임을 했습니다. 태아의 성장에 대해서는 김유호선생님께서 어렵게 구한 'NINE MONTHS' MIRACLE

이라는 의과대 교육용 CD를 보았는데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정에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두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천보육교사회

■'97년 12월20일 새싹들의 방 어린이집에서 '98 인천보육교사회 정기총회를 28명 정회원에 24명 정회원과 1명 준회원의 참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1997년도 사업평가와 '98 사업계획, 조직개편, 임원선출(회장/문유미선생님, 사무국장/고정미선생님, 조직부장/최화영선생님, 홍보부장/박은아선생님) 등이 있었습니다.

■새싹들의 방과 세쌍둥이 어린이집이 통합하여 현재 새싹들의 방이 내부공사를 하고 있으며, 2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엽니다. 새싹들의 방 대표교사인 김동준선생님이 2월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갑니다.

■제1회 열린강좌 '보육교사와 함께 여는 우리의 장단, 우리의 노래'를 성황리에 마치고,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에 걸쳐 임수정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음악을 활용하

음활동' 초급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인원은 20명이고, 수강료는 월 5만원입니다.

■햇살어린이집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새로 지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던 이명숙선생님!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인천보육교사회 회원중 최은하, 이은희, 노승경, 신현경선생님께서 이웃사랑어린이집(구립시설)에 교사로, 전 교육연구부 조현경선생님이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명숙선생님(12/4, 나눔어린이집), 최화영선생님(12/20, 우리동네어린이집), 문유미선생님(1/1, 예술어린이집), 신현경선생님(1/17, 이웃사랑어린이집), 이순선선생님(1/10, 예술어린이집), 이명숙선생님(1/19, 햇살어린이집)

광주보육교사회준비위

■광주보육교사회(준)는 1월 18일 대망의 광주보육교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보육운동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광주보육교사회는 회원 확대, 소모임 강화, 보육학교 개최 등의 사업으로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는 교사회가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남부보육교사회

■남부보육교사회는 '97년 12월 총회를 하여 전회원의 간부화(?)하여 모두가 뛰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보육교사회

■부산보육교사회는 1월10일 정기총회를 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98년 보육교사회 사업방향을 '교육의 강화'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교사의 상을 내오기 위해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봉천보육교사회준비위

■봉천보육교사회(준)가 주최한 인형극강좌에서 1월 17일 지역아이들 대상으로 무료 인형극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서울국공립보육교사회

■지난 12월 휴식기를 끝내고 1월 모임을 이상옥선생님대에서 하였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하니 분위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회원이 준비하는 교사수련회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준비과정에 들어갔다는 훌륭한 소식.

수원보육교사회준비위

■수원의 옹기종기어린이집이 1월로 문을 닫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공립 위탁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선생님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어린이집 원장으로 새 임용되었습니다.

전북보육교사회

■전북보육교사회는 1월 한 달 '97년 평가와 '98년 계획잡기가 한창입니다. 작년의 부진을 극복하고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기 위해 일꾼들이 거의 매일 모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본회 '97년 12월&'98년 1월 활동일지

★ 결혼을 축하합니다.

■광주 김지선선생님이 3월에 결혼을 합니다. 인천에 올라와 있었는데 인천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대요. 현지에서 신랑감을 찾지 못한 회원 여러분! 과감히 지역을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김지선선생님 축하해요.

★ 출산을 축하합니다.

■서울, 어깨동무어린이집의 양은희선생님이 첫 아이 이후 8년만에 득남을 한 기쁜 소식. 노산의 고통 속에 그 넉넉한 몸이 훌륭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축하해요.

(연락처 : 02-833-7326)
■일본에 건너가 있는 우리 변미양선생님의 득남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불편한 몸에도 많은 지인들이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 최상이래요. 무엇보다 자연분만에 성공한 변미양선생님의 투혼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화 : 001-81-6-718-1750

주소 : 日本 大阪市 生野區

桃谷 2-23-51 (101)

邊美羊 543

1997년

12/ 1 집행부회의
5 건강교사모임
9 여연 조직위원회 참가
10 여성평화의 집 이사회

11 집행부 하루 MT
13 신입교사교육
18 이사회
22 집행부회의
23 수련회준비팀 회의
정책개발위원회모임
29 집행부회의

1998년

1/ 5 총회준비팀 회의
8 집행부회의
정책개발위원회
12 집행부회의
17 총회준비팀 회의
18 '98 이사회 합숙
수련회준비팀 회의
21 집행부회의
22 여연총회
23 건강교사모임

■ ■ ■ 편집부에서 ■ ■ ■

♣동근 해가 되었습니다!

시행건 1998년도의 해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뜬 것 만큼이나 뜨거운 해가 우리 가슴에도 "희망"이라는 빛을 발하며 떠올랐습니다.

지난달과 올해의 첫달은 유달리도 어둡고 힘들게 지내왔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 때문일 겁니다.

나라도 새 가장을 얻었듯이 우리 한국보육교사회도 이번 총회를 통해 새 가장을 뽑게 됩니다. 1998년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줄 이가 우리와 궂은 일도 함께 해갈 새 가장으로 선출되리라 믿습니다.

무인년! 『우리네 아이들』은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힘차게 뛰어 다니는 한국보육교사회와 우리 모두를 기대합니다!

♣이번호는 쉽니다.

매번 일본 오사카에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소식을 보내주셨던 본회 명예회원 변미양님의 글이 이번호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997년 12월에 변미양님이 독남하셔서 지금은 산후조리와 육아 실습(?)에 들어가셔서 원고를 보내주실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필자의 사정이 듣는 우리의 입을 한껏 늘어나게 하는 내용이니만큼 '오사카에서 온 소식'을 못보는 서운함쯤이야 금새 사라졌죠?

나은미선생님의 '육아일기'도 이번호는 쉽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원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대변지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부의 헌신과 함께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종 아이디어와 원고가 풍부하다면 더 없이 좋은 소식이 되리라 믿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이디어, 또 교육현장과 생활현장에서의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만이 『우리네 아이들』의 살 길(!)입니다.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설선영, 한재용, 우리어린이집, 조선경, 백선희님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제과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이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교사는, 우선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을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소식지, 중앙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될 수 있고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회원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형성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주소: 서울 강남구		전화: 02-358-0908	
1. 한국보육정보연구소	2. 서울특별시 강남구	3. 서울특별시 강남구	4. 서울특별시 강남구
5. 서울특별시 강남구	6. 서울특별시 강남구	7. 서울특별시 강남구	8. 서울특별시 강남구
9.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32. 서울특별시 강남구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34. 서울특별시 강남구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37. 서울특별시 강남구	38. 서울특별시 강남구	39. 서울특별시 강남구	40. 서울특별시 강남구
41. 서울특별시 강남구	42. 서울특별시 강남구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44. 서울특별시 강남구
45. 서울특별시 강남구	46. 서울특별시 강남구	47. 서울특별시 강남구	48. 서울특별시 강남구
49. 서울특별시 강남구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51. 서울특별시 강남구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53. 서울특별시 강남구	54. 서울특별시 강남구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57. 서울특별시 강남구	58. 서울특별시 강남구	59. 서울특별시 강남구	60. 서울특별시 강남구
61. 서울특별시 강남구	62. 서울특별시 강남구	63. 서울특별시 강남구	64. 서울특별시 강남구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66. 서울특별시 강남구	67. 서울특별시 강남구	68. 서울특별시 강남구
69. 서울특별시 강남구	70. 서울특별시 강남구	71. 서울특별시 강남구	72. 서울특별시 강남구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74. 서울특별시 강남구	75. 서울특별시 강남구	76. 서울특별시 강남구
77. 서울특별시 강남구	78. 서울특별시 강남구	79. 서울특별시 강남구	80. 서울특별시 강남구
81. 서울특별시 강남구	82. 서울특별시 강남구	83. 서울특별시 강남구	84. 서울특별시 강남구
85. 서울특별시 강남구	86. 서울특별시 강남구	87. 서울특별시 강남구	88. 서울특별시 강남구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90. 서울특별시 강남구	91. 서울특별시 강남구	92. 서울특별시 강남구
93. 서울특별시 강남구	94. 서울특별시 강남구	95. 서울특별시 강남구	96. 서울특별시 강남구
97. 서울특별시 강남구	98. 서울특별시 강남구	99. 서울특별시 강남구	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매뉴얼입니다.